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42 호

2020년 1월 15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UNGC Open Day 2021: 회원사 간담회
2. UNGC Open Day 2021: 비회원사 초청 설명회 (1/29, 2/26)
3. [Monthly Insights 1 월호] '2021년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10주년, 지속가능한 미래의 열쇠는 인권'

■ 본부 소식

1. 2021 SDG 선구자(SDG Pioneers) 국가별 후보 모집

■ SDGs 소식

1. [COVID-19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유한킴벌리
2. [SDGs 솔루션] 아쿠아파바의 매력: 병아리콩 삶은물로 만드는 유제품 무첨가 버터

■ UNGC 회원 뉴스

1. 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사업 추진
2. 산업은행, 15억달러 규모 '글로벌 ESG 채권' 발행 성공
3. 한화솔루션, 친환경 포장재 사업 본격 나선다

4. 이빛컴퍼니 "기술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소셜 임팩트기업으로 거듭날 것"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20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UNGC Open Day 2021: 회원사 간담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세계 최대 글로벌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의 한국 네트워크입니다.

2021년의 시작과 함께 협회는 2020년 UNGC에 가입한 신규회원사 혹은 변경된 담당자들을 초청해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2021년 UNGC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간담회는 UNGC 활동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회원사분들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다양한 현안과 UNGC 운영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1.1.22. (금) / 2.5. (금) / 2.19. (금) 중 택일

시간: 오후 2시 ~ 3시 30분

장소: 온라인 진행 예정 (참석희망자 대상 ZOOM 링크 별도 송부 예정)

대상: UNGC 회원사 실무자

프로그램:

-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동향
- 2021 UNGC 주요사업 및 참여 안내
- 질의 응답

문의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참석등록 바로가기](#)

2. UNGC Open Day 2021: 비회원사 초청 설명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세계 최대 글로벌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의 한국 네트워크입니다.

2021년의 시작과 함께 협회는 UNGC 가입 관심 기업들을 초청해 UNGC 회원사 혜택 소개 및 2021년 UNGC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간담회는 UNGC 활동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지속가능경영 관련 다양한 현안과 UNGC 회원사 혜택 및 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1.1.29 (금) / 2.26 (금)

시간: 오후 2시 ~ 3시 30분

장소: 온라인 진행 예정 (참석희망자 대상 ZOOM 링크 별도 송부 예정)

대상: UNGC 가입 관심기업

프로그램:

- UNGC 및 지속가능경영 동향 소개
- 2021 UNGC 주요사업 및 회원사 혜택
- 질의 응답

문의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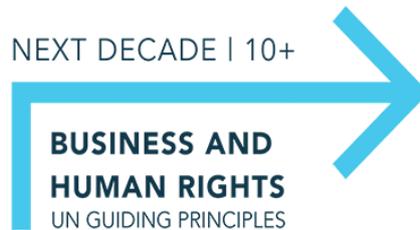
[참석등록 바로가기](#)

3. [Monthly Insights 1 월호] '2021 년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10 주년, 지속가능한 미래의 열쇠는 인권'

2021 년 1 월호의 주제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 채택 10 주년을 맞아, 기업과 인권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Monthly 에는 유엔 기업과 인권 연례 포럼 결과,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성명서 및 전문가 기고, 2020 유엔글로벌콤팩트 임팩트 리포트와 한국협회가 발간한 <기업과 인권 지침서: 실사(Due Diligence) 가이드라인> 소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뉴스로 보는 CSR(ESG, 기후변화 대응, 성 평등)에 대한 최신 동향, COP26 및 Caring for Climate 에 대한 본부 소식, Gender Equality Korea 와 Business Integrity Society 의 콘텐츠를 담았습니다.

<주요 콘텐츠>

1. 제 9 회 기업과 인권 연례 포럼



“2021년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10주년, 지속가능한 미래의 열쇠는 인권”

2021년은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존 러기 기업과 인권 유엔 특별대표의 연구팀이 개발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 10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인권에 대한 다국적 기업 및 국제사회의 관심과 역할 그리고 그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11월 16일에서 18일까지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방지: 사람과 지구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의 열쇠”라는 주제로 제9회 기업과 인권 연례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포럼에서 국제사회 인권노동 전문가들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 불평등, 구조적 차별, 잘못된 정보의 만연, 기후 변화 가속화 등 심각한 도전과제들로 인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현재 상황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이들은 한 목소리로 기업과 인권 의제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호는 제 9 회 유엔 기업과 인권 연례 포럼에서 진행되었던 고위급 플레너리 세션의 참석자들(미셸 바살레 유엔인권최고대표, 아니타 라마사스트리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의장 등)의 주요 메시지와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에도 기업들의 인권을 위한 노력을 점검하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포럼의 마무리를 장식한 폐회세션에서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발표를 통해 미래 사회 기업과 인권 주요 이슈와 UNGP 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했습니다.

2. 뉴스로 보는 CSR 트렌드

최근 들어 ESG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한국 100대 상장사 중 이사회에 ESG위원회를 도입한 곳은 단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수치는 작년보다 1곳 늘어난 것인데, 포춘 100대 기업 중 이사회에 ESG위원회를 보유한 곳이 63곳에 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미진한 상황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사회 내 ESG위원회의 수도 문제이지만 그 사이즈와 구성원의 전문성 역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명문화된 규정이나 전문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100대 상장사 중 ESG도입 12곳에 불과... 전문가도 없어](#)

매월 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로 보는 CSR 트렌드> 코너에서는 ESG 위원회 도입의 중요성과 전문성 개선에 대한 기사를 보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영국 내 여성 사외이사 증가에 대한 소식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인사이트

팬데믹 시대, 기업의 인권 존중 실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인권 아젠다의 연관성

유엔 기업과인권 실무그룹 성명서



전문가 인사이트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성명서 <팬데믹 시대, 기업의 인권 존중 실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인권 아젠다의 연관성>을 번역해 제공합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코로나 19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의 책임성 있는 기업 윤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코로나 팬데믹 상황 대응과 탄력적인 회복에 있어 기업의 인권 존중이 지니는 중요성 △피해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 보장의 필수성을 주제로 “보호, 존중, 구제” 3 개의 핵심 원칙에 기반한 기업의 코로나 19 인권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베라 체레파노바 Studio Etica 설립자는 FCPA 블로그 기고문을 통해 기업의 인권 실사 의무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부패와 인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미국, 독일, 스위스, EU 등 기업과 인권 사안에 대한 규제 의무화 경향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 모니터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통합 추세를 설명하고 미 법무부가 제시하는 이행방안을 소개합니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반부패 프로그램과 인권 프로그램을 통합해 효율성과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발간물 소개

2020: The Year of Impact 2020 유엔글로벌콤팩트 임팩트 리포트



발간물 소개에는 창립 20 주년을 맞아 유엔글로벌콤팩트가 발간한 <2020 유엔글로벌콤팩트 임팩트 리포트>가 포함되었습니다. 본 리포트는 2020 년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다양한 파트너십 및 캠페인 등을 다루며, 유엔 리더스 서밋, Uniting Business LIVE 행사 등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지속가능발전목표 진전의 기회로 전환하고자 전개한 활동들을 소개합니다.



기업과 인권 지침서: 실사 가이드라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우리 기업의 효과적인 인권경영 시스템의 내재화 및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자 <기업과 인권 지침서: 실사(Due Diligence)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UNGC 10대 원칙,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및 OECD 실사 가이드라인, 국내외 법제도를 연구·조사한 국내외 동향 및 주요 가이드라인을 소개한 총 집약서입니다. 특히 기업의 인권실사의 다섯 요소, ▲인권 정책 선언 및 내재화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및 공시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대해 실사단계별 실행 방안 및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글로벌 기업의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 회원사들에게 기업 인권실사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발간물, 기업과 인권 지침서에 대한 소개를 담았습니다.

5. GEK/BIS 콘텐츠



[국내 동향] 가족친화인증제도



[글로벌 동향] 코로나19 대응



[2020 UNGC 한국협회 X 팀블라인드] 기업 반부패 인식 서베이 결과 ①



[2020 UNGC 한국협회 X 팀블라인드] 기업 반부패 인식 서베이 결과 ②

마지막으로 UNGC 한국협회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Gender Equality Korea(GEK)와 Business Integrity Society(BIS)의 콘텐츠가 소개되었습니다. GEK 는 국내 동향으로 기업 대상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다루었으며, 글로벌 동향에서는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의 전 세계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BIS 는 UNGC 한국협회와 직장인 커뮤니티 팀블라인드가 함께 진행한 기업 반부패 인식 서베이의 결과 분석 및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Monthly Insights 는 회원사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매월 첫째주 수요일 회원사 실무진들에게 발송됩니다. Monthly Insights 관련한 문의 및 제안사항 gckorea@globalcompact.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

1. 2021 SDG 선구자(SDG Pioneers) 국가별 후보 모집

The poster features the UN Global Compact logo and the text 'SDG Pioneers' at the top left. Below it, the main message reads 'Apply now to become a 2021 Global SDG Pioneer.' and the hashtag '#SDGpioneers' is displayed. The right side of the poster is a grid of 12 black and white portraits of diverse individuals, with colored squares (green, red, blue, yellow) interspersed between them.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16년부터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을 통한 SDGs 진전을 위해 기업을 선한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리더들을 SDG 선구자로 선정해 왔습니다. 선정된 SDG 선구자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책임성 있는 기업과 비즈니스 리더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주었습니다.

SDG 선구자 프로그램의 글로벌 모집 기간은 1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2021년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밋에서 SDG 선구자들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가운데 SDG 선구자를 모색하기 위해 15개의 지역 네트워크들이 국가별 후보자를 파악했습니다. 국가별 수상후보자는 지난 12월에 선정되었으며, 이들은 글로벌 라운드에서 세계 각국의 후보들과 함께 경쟁해 최종 선정됩니다.

해시태그 #SDGpioneers를 활용해 소셜미디어에서 관련 대화에 참여하세요.

[자세히 보기](#)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유한킴벌리



UNGC 가입: 2007. 3. 8.

1970 년에 창립한 유한킴벌리는 올해로 창립 50 주년을 맞이하는 생활혁신기업입니다. ‘더 나은 생활을 향한 믿음’의 비전 아래, 제품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생활문화를 개선하고, 또한, 미세먼지, 바이러스, 케미포비아 등으로부터 제품안전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84 년에 시작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숲환경보호 공익캠페인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여성역량강화활동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기부사업 등 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하여 기업시민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 년에 유엔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한 이래 4 대 원칙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기부 긴급 액션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권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2 월초, 유한킴벌리는 기부 물량 15 만장을 확보해 아산, 진천 지역에서 격리 생활을 한 우한 교민들과 전국 취약계층에게 전달하였습니다. 3 월에는 창립 50 주년 기념 행사 대신 대구지역의 의료진과 취약계층에 마스크 100 만장을 기부했습니다.

월정급여 1% 나눔과 노동조합 특별 구호 기금 전달

유한킴벌리의 직원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지역 취약계층, 의료진 등을 돕기 위해 3 월 월정급여의 1%를 기부하는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사원의 90%가 참여하여 약 5,980 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동조합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의료시설과 공공기관에 마스크, 화장지, 생리대, 손소독제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유한킴벌리희망뱅크(기부플랫폼)을 통하여 마스크에 이어 기저귀, 생리대 등 지역사회 회복을 위하여 제품기부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정부 공적판매 확대 신속 대응

유한킴벌리는 정부의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적극 대응해 KF94, KF80 마스크와 덴탈마스크 일일생산량의 50%-80%를 공적판매를 통해 신속하게 출고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판매처로 지정되어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복과 보호복 수요 긴급상황에 따라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호복의 경우, 다수의 국내 봉제공장과 계약을 맺어 3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로 새로운 추가 생산 판로를 발굴하는 긴급결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위기관리팀 구성

유한킴벌리는 국내 코로나 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즉시 '안전/위생 위기관리팀'을 조직하였고, 2월 전국적으로 감염 위험이 심각수준으로 확산됨에 따라 전사 '코로나 19 위기관리팀'을 구성하여, 대응 프로세스 구축 및 행동가이드라인 수립 및 유연근무 시행, 대내외 대응활동 등을 총괄하였습니다.

예방·대응 가이드 운영 및 사내 정보 공유

코로나 19 위기관리팀은 구성 직후 제일 먼저 ‘코로나 19 대응 프로세스’를 수립했습니다. 인트라넷, 매주 발간하는 ‘위기관리 뉴스레터’를 통해 안전보건 수칙과 대응 가이드라인, 대응 현황 등을 사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재택근무 및 원격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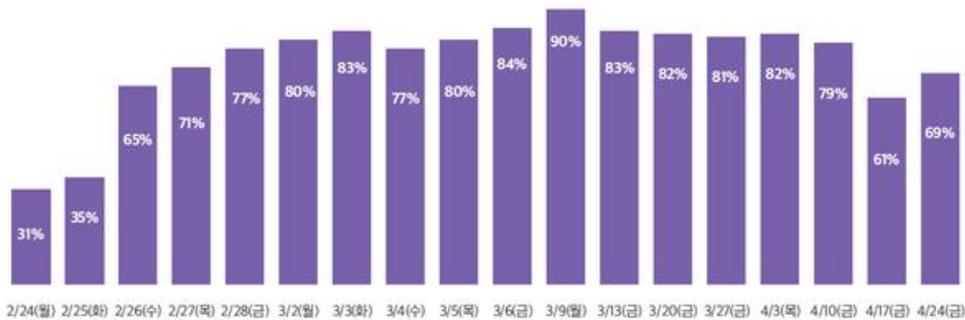
디지털라이제이션 기반의 스마트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재택근무와 원격회의를 시행해 집단감염을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2월 11일 감염에 특히 취약한 임산부 및 육아 중인 사원을 시작으로, 2월 24일 필수출근자외 전 부문으로 재택근무를 확대하였고, 3월 9일자 기준 본사 재택근무자 비율은 90%였으며, 4월말기준 평균 73%의 사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상 마스크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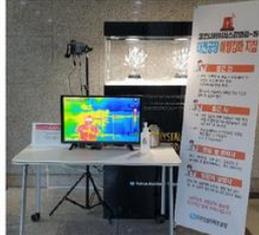
유한김벌리 사원(본사 및 국내 전사업장)에게 4 차례에 걸쳐 마스크를 제공했습니다. 코로나 19의 주요 감염 매개체인 비말을 차단해 사원들의 근무현장과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출입자 안전 관리 및 사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본사 및 사업장 출입시 체온측정,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출장을 제한하고, 외부 회의를 가급적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하여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식당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일렬 또는 지그재그 착석하도록 했으며, 실내 흡연공간, 헬스장 등 밀폐공간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더불어 주기적 방역을 실시해 감염 확산을 사전 예방했습니다. 또한 통합고객서비스센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재택근무 참여 비율(본사)



2. [SDGs 솔루션] 아쿠아파바의 매력: 병아리콩 삶은 물로 만드는 유제품 무첨가 버터



Fora Foods는 병아리콩 삶은물과 코코넛 오일을 재료로 한 비건 버터 대체품 Faba Butter를 제조합니다.

Fora Foods의 개발자는 본 제품이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판 버터와 유사한 식감 및 영양소를 지니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병아리콩 통조림이나 삶는 과정에서 나오는 갈색 물인 아쿠아파바는 최근 다양한 식물 기반 요리법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조리하는 과정에서, 병아리콩에 함유된 단백질과 영양소 대부분이 삶는 물로 빠져나오는데, 이 물은 그대로 버려지곤 했습니다. Fora Foods 는 후무스 생산업체에서 아쿠아파바를 수집해 자사의 유제품 무첨가 버터인 Faba Butter 의 핵심 재료로 사용합니다. Fora Foods 는 이 재료와 식물성 기름, 각종 양념을 추가하여 이 제품이 버터의 영양과 식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고 다양한 요리 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Fora Foods 는 시중 유제품 첨가 버터와 유사한 Faba Butter 를 통해 일반 소비자의 일상적인 식단에 식물 원료 음식이 더 많이 포함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Faba Butter 는 미국 내 식료품점 '잇탈리(Eataly)' 및 다양한 협력 레스토랑에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왜 Fora Foods에 주목해야 할까요?

전 세계의 2 억 7,000 마리에 달하는 젓소는 삼림 벌채, 메탄 가스 배출, 수자원 낭비 및 토양 침식현상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유제품에 내재되어 있는 환경 및 윤리적 임팩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 년 간, 유제품 대체 상품 산업은 건강 및 지속가능성 이슈로 인해 연간 8%씩 성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유제품 대체 상품에 대해서도

상당한 양의 수자원이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Fora Foods 는 폐기물인 아쿠아파바를 활용함으로써 자원을 덜 소비하는 유제품 대체 상품을 시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Fora Foods 는 아쿠아파바를 시중 상품에 재활용함으로써 식품 산업의 순환경제를 진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행동



Fora Foods 는 자사의 Faba Butter 가 시중 유제품 버터에 비해 4 배가량 적은 탄소발자국을 남기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 뉴스

1. 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사업 추진



- 현대차그룹, 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를 재사용한 에너지저장장치와 태양광 발전소를 연계한 실증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힘
- 본 실증사업과 관련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사업은 인허가 규정이 설립되지는 않았으나 산자부 규제 샌드박스 특례 승인을 받아 추진
- 본 사업은 현대차 울산공장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친환경전력을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 ESS 에 저장한 후 외부에 공급한다는 것이 골자
- 본 사업을 통해 현대차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 확보 및 판매로써 국내 탄소 감축 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활용 효율 극대화 기대
- 본 사업뿐만 아니라, 현대차는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

동아닷컴

2. 산업은행, 15억달러 규모 '글로벌 ESG 채권' 발행 성공



- 산업은행, 전 세계 투자자 대상 총 1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본드 발행했다고 밝힘
- 본 사업을 통해 산업은행은 올해 외자조달의 개시를 알렸으며, 특히 본 채권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견실함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신뢰가 반영된 결과
- 본 채권은 지난 2018년부터 산업은행이 지속적으로 발행해 온 ESG 본드의 연장선으로, 글로벌본드 중 7억 규모 지분은 2 차전지,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 그린뉴딜 사업 지원에 활용될 계획
- 관계자는 "글로벌본드 발행은 다양한 만기에 대한 벤치마크 금리를 제시하여 향후 한국계 기관들이 발행 시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산업은행은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국내기관의 후속 발행에 유리한 발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힘

그린포스트코리아

3. 한화솔루션, 친환경 포장재 사업 본격 나선다



- 한화솔루션, 일회용 포장재의 스티로폼을 대체하고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친환경 포장재 사업 확대할 전망
- 본 사업 확장은 한화그룹이 최근 주력하고 있는 ESG 에 발맞춘 행보로서,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와 생분해 플라스틱의 투트랙 개발로 친환경 화학소재 사업을 공략할 예정
-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모토로 한 본 사업에서 사용되는 EPP 소재는 가볍고 내구성이 강하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아 포장재로 재활용이 가능
- 또다른 소재 중 하나인 에코데치는 수소 첨가 기술을 활용해 환경호르몬을 없애는 등을 통해 안전성을 인증받은 친환경 가소제

매일경제

4. 이빛컴퍼니 “기술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소셜 임팩트기업으로 거듭날 것”



- 이빛컴퍼니, 작년 12월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수상
- 이빛컴퍼니는 전기자동차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특히 최근 트렌드인 기존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 및 튜닝하는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
- 전기차 보급률 및 충전 인프라 전국 1위인 제주도에 기반한 본 기업은 최근 전기차 폐배터리 처리에 관심을 두고, 관련 솔루션을 개발해 자원 순환에 기여하고자 함
- 다양한 워크숍과 파트너십을 기획해 중소기업과 상생하여 전기차 산업을 주도하는 ‘플러그인코리아’ 창립하였으며,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하는 데 노력
- 박정민 대표는 ““기술로 사람을 즐겁게 한다”는 철학아래 모빌리티 소셜 임팩트기업으로서의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서울경제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0 곳입니다.

2. COP/COE 제출회원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6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 한화솔루션
- 테라컨설팅
- 롯데홈쇼핑
- 한전산업개발(주)
- 한국수력원자력
- 예탁결제원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 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안내

<1-4 분기 연회비 미납 회원사 (매출액 USD 5,000 만 달러 이상 기업)>

롯데쇼핑, 한국남동발전, 휴맥스, 한국마사회,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삼덕통상, 한국부동산원

<1-4 분기 연회비 미납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대덕섬유, 테라컨설팅그룹, 씨사이드코리아, 사람과세계경영학회, 충북대학교,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산업정책연구원, 한국도자재단,
(사)내부장애포인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이젤, 유엔한국협회, 이젤,
한국임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제융복합협회

2019 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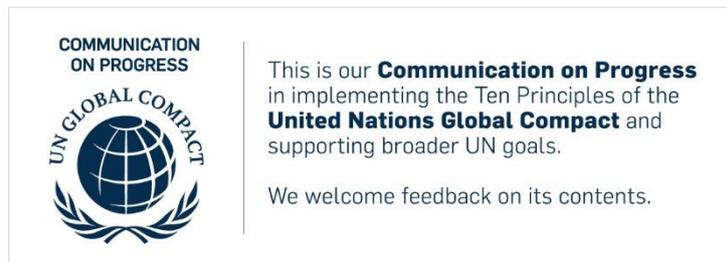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